朝鮮日報
朝刊夕刊合六面
發行人 安在鴻 編輯人 白寬洙 印刷人 李存九
發行所 朝鮮日報社

社說
米國의今昔

一

七月四日은시나간다 이날은 米國의獨立紀念日로서 世界的으로有名하게되엇다 米國에서는 每年이날을紀念하기爲하야 全國的으로 一大祝典을擧行함으로 그混雜은想像키어려울程度까지미치며 死傷者가百으로算하게될슴이다 彼等이最初그의母國인 英國에對하야 自由의叛旗를들고일어나서 八年間의血戰으로서 理想的인民主主義國家를完成하고 太西洋岸十三州의領土로서 新世界에서볼수업는 樂園을形成한지는 벌서一百五十年을 算하게되엇다 이것이自由主義勃興時期인 十八世紀의下半紀에잇서서는 人類의자랑이오 文明의極致이오 빗아서人類生活의最高階段인것가티보엿섯다 世界史上劃時期的大事件인 佛蘭西大革命도또한이로因하야 크게動機를지은것도事實이엇섯다 그리하야『보스톤』의一角에 自由를渴仰하는『퓨리탄』敎徒의上陸으로부터出發한米合衆國의自由의歷史는舊世界들을冷笑하는 超群한一體系를 形成한觀이잇섯다 米國人이이를自負하고 世界가또이를許與하엿섯다

二

七月四日의紀念은 歐洲戰亂의終結과한가지로 거의世界的名節이되려는듯하엿다 그는『부르조아』的自由主義를渴仰하는 西方의諸國民들에依하야 一時그리되는양하엿섯다 그는마치民族自決主義의提唱이世界모든弱小國民의 大部의사람들에게그非常한期待를주엇든것처럼七月四日그것이 七月十四日그것보담도 一層意氣잇는것가티떠들러하엿섯다 이는人類共通의暗黑面인 阿諛性——自己貶下의半面의本能을 表現한것이라고하겟지마는 米國의無盡한富力 그리고涵蓄된强力은 이와가튼反響을 世界的으로널리키려하엿섯다 참으로第三次大統領의推戴를 斷然히辭退하고 조용히『바논』山下『포드막』의江上에退隱하야 平和한田園의生活로써 餘年을보낸 米國人의國父『쪼지·와싱톤』의高潔한人格이라든지 『센트루이』의市場 各곳으로팔려가는黑人家族의悲哀를보고 毅然히그自由의解放을爲하야一生의身命을바침으로써 그를實現키를努力한『아부라함·린컨』의米國이 諸國民의敬仰의表的이됨에合當한것은事實이엇다 그러나지금의米國은 이미急激한變動의途程中에잇다

三

米合衆國은 지금 世界第一의 그들의標語를 實現하고잇다 그의壓倒的인富力 金融資本과및巨大한生産品을비롯하야交通通信機關의完備 生活의豐足 科學의進步가튼것外지 거의世界에 冠絶하려는現狀을把持하고잇다 그러나吾人은이미『맷킨레』의米國『우드』의米國을말하지안터라도 米國의蓄積되는莫大한富와 發達되는科學的인모든利器가 이미『와싱톤』과『린컨』의米國이아닌것을 斷定한지오래다『윌손』과『하딩』『쿨릿지』와『켈록』의優劣 長短을論하는것은 一層이어無用하지마는 現代의米國은 이미全歐洲로부터 더□□을밧고잇고 亞細亞의信組하든後進들로부터서도 걸핏하면抗議를밧게된다 이것은歷史進行의必然的인歸結로서道德的非議를要할바아니지마는 今昔의變化는 스스로多少의感想이잇게하는바일이다

四

米國에關하야 吾人은禁酒運動을생각할수잇다 이는어느程度外지有用한일인것을 首肯케한다 그러나米國의禁酒運動은엇지한지富裕한紳士가 건장하면遊蕩에싸지려는靑年子弟들을안해안치고 形式的인愛國의道를 講하는것과가튼感이잇다 그리고또進化論의否認및그禁遏을생각할수잇다 이런것은다치中世紀의歐洲帝王들이 天動說을否認하고 宇宙觀의發達을禁遏하게하든것과가티 一律瑣屑한일로서 斷髮女子의排斥가튼것도米國現下의思想傾向을 볼수잇다 만일全世界資本主義의 斷後의猛將으로서 社會的新興思潮를爲하야 一大暗礁와가티버틔고잇는것은 다시容言할餘地가업다 世界에서만일 英帝國의龜裂을豫想할수잇다하면 米合衆國의存在가튼것은 趨勢力의防護를爲하야서는 最後의城砦될것을미들수잇슬것이다

沙市警察의 武裝을解除

(沙市二日發) 第八軍은元北軍十八師의兵과地方의土匪로組織된沙市警察隊約四百名이土匪的行爲를하는것을發覺하고一日午前十時市中에在한屯所를襲擊하야步裝을解除하엿는데雙方엔死傷者十名을出하엿더라

八軍沙市에到着

(東京電) 沙市發海軍省電에依하면三十日夕汽船一隻과民船十四隻으로八軍一師의兵은約二千은上流로부터沙市에到着하엿는데其中千二百은一日朝에下江하야湖南에向하엿다는바沙市內의商店은依然閉店하엿더라

上海排日高調 國民政府無策
蔣介石氏秘密裡來滬

(上海四日發) 排日風潮는日益熾烈하야放任하면더욱惡化되어事態가重大할터임으로蔣介石氏는三日南京으로부터秘密히來滬하야善後策을講究中인데日本의出兵反對熱이盛하야國民政府도이를抑止할수가업다 그러나日中關係는最近親密의度를加함으로排日熱을煽動하야日貨排斥의擧에出함은돌이어中國에對하야不利함으로排日이具體化하면斷乎한處置를取할터이라더라

英秘密案拒絶
그래도會議는不缺裂

(華盛頓二日發) 亞米利加政府는二日『제네바』軍縮會議에關한英國의秘密提案을斷然拒絶하기로決하얏다 右秘密提案은英米二個國의巡洋艦級의總噸數를各六十萬噸으로制限하려는것이나此에對하야米國은右와如한數字를認定하는것보다차라리會議를解散할것이라는意見이다 萬若六十萬噸으로制限한다고하면二十萬噸은新造中의것及豫算에成立된것을加하게되어그最新型艦의勢力은現在의二倍가되게되며亞米利加海軍은現在의新型艦勢力은 目下建造中인一萬噸의巡洋艦二隻을加하드라도겨우九萬五千噸임으로英國의提案에從하면實로六倍를擴張하게된다 그런데米政府는會議를缺裂시키는것보다차라리會議에提案되는三十五萬噸乃至四十萬噸이라는提案을承認하여도可하나그以上으로하려는提案에는絶對로反對이라고解釋된다 또米國으로서는十萬噸을限度로할希望이나英國의財政力을限度로할것가트면或은그것을承認하여도조타는것이더라

日本은强硬回訓
巡洋艦問題에 海軍當局의協議結果

(東京電) 海軍省에서는三日午前六時『제네바』에서巡洋艦에對하야英國이一萬噸、七千五百噸으로二分하려하야其態度가甚히强硬한바日本代表는日本海軍은如何히할가하는請訓이到着한外닭에直時野村次長左近司軍務局長 阿武參謀等이參集하야協議한結果左의回訓을發하엿더라

一、備砲八吋의一萬噸及備砲六吋의七千五百噸의兩種에巡洋艦을區別함에는反對함
一、日本은巡洋艦七千噸以下에限하야備砲六吋으로할事
一、艦齡은二十年으로함
一、巡洋艦에五、五、三의比率의適用에는强硬히反對하라

三國軍備를 縮少?增加?
現在狀態를繼續하면

(『나우연』二日發)『커네바』三國軍縮會議는現在와가튼狀態에在한米代表側의意見을들으면三國海軍軍備의減少가아니라돌이어增加하는結果이나되지안홀가念慮된다

最大가千八百噸

(『커네바』二日發) 二日軍縮會議專門委員은潛水艦問題에對하야左와如히意見이一致되엇더라

一、潛水艦의最大單艦噸數를千八百噸으로함
二、代艦艦齡은十三年으로함
三、備砲口徑은五吋으로함
四、潛水艦은大型、小型의二種으로區別함

但小型潛水艦의最大單艦噸數를幾噸으로할가는五日의專門委員會外지保留함
또專門委員會는驅逐艦問題에對하야左의二項을追加하엿다

一、速力은十八『노트』로함
二、嚮導驅逐艦과驅逐艦의割合을後者의十『노트』에對하야前者는十六『노트』로함

地方線全部에 電氣燈架設
不遠實施豫定

鐵道局에서는昨年九月부터朝鮮炭使用에適合하도록『단구』型機關車七輛의火床을改造한바消費量이果多하고振動이激甚으로乘務員의疲勞가甚하야畢竟失敗에歸하엿는데『코소류―조』型機關을試驗的으로改造하야好成績을得하엿는데一輛六千圓으로今年中에七輛을改造하기로決定하엿다는바 地方線列車에는 아즉도『람프』를使用하는곳이잇슴으로新聞이나雜誌等을읽을수도업고乘客에不愉快한點이甚多하야不遠間全部電燈으로할計劃을樹立하엿다더라

間島龍井村 朝鮮民會
辯明書를發表

間島龍井村朝鮮人民會를相對로한市民有志會大者에서諸般決議及民會當局과現議員全部의不信任狀外지發達하엿다함은昨報와如하거니와民會當局에서는理由가不當하다고不信任案을不受理하는同時에逐條辯明한辯明書外지作成하야配付할計劃이라는바辯明하려는要點의大要는如左

◇辯明要點

一、未納會費가六七萬圓에達한다는것은數字의大相違이며方法을講究치안헛다고하나民會의內情을理解치못한말이다民會에서는會費徵收方法에對하야從來로別般手段을講究하여왓스나會員一般이民會에對한薄弱한義務心으로엇절수업는外닭이다(中略)諸般手段이모다水泡에歸하게되엇슴으로最後의一策으로書類經由를機會로하야未納會費를控除하기로한것이다
一、民會의會費收納成績이不良하야任員의俸給도依數支出치못한것은事實이다 그러나淸潔人夫에게對하여는極力留意하야計月支拂하엿고六七百圓의勞賃을未拂한것은事實이나此는從來의積滯된것으로昨年度外지에도千餘圓의積滯金이잇섯다(中略)그러나現今에는六七百圓으로減縮되엇다
一、役員이私事로多月間缺勤이라함은누구를指稱함인지모르겟다(中略)그러나一個月內外에旅行한일은잇다(中略)그것은本會規則에잇는것이다 又는過多한賞與金云云은더구나그러치안타그比率은官公署、銀行、會社等의年末賞與金에比하면最低額이라할것이다
一、殖産貯金으로말하면四五日前外지假滯額이七千圓現金은四十六錢의殘高가잇섯슬뿐이다(中略) 民會에서는此를根本的으로整理한結果現在現金積立이三百餘圓과假滯額이五千圓以上에達하엿다(中略) 殖産貯金은民會當局者라고하야殖産貯金으로貸附한事實은업다
一、民會議員及總會를通過하야監督官廳에認可를得하야成立된規則에依하여正當選擧權者로서選擧된가장合法的選擧이오決코非合法的選擧는아니다

民會委員會
二個條項決議

市民有志會에서民會員不信任狀을發送하엿다는바民會에서는지난二十三日民會議室內에緊急議員會를開하고左記事項을決議하엿다더라

◇決議事項

一、市民有志會로부터民會에送達된通知書中文簿閱覽에對하야此를許하되文簿謄本은不許하고一般傍聽도不許할事
二、不信任案은現議員으로는其責任을負할必要가업슴으로此를受理치안는同時에全然否認하고不信任理由의五個條項은不當한것으로一般에게聲明하기로함(但議員中李庚在朴榮實南氏의辭表는接受하고補缺은次點으로引上하기로함)

市民有志後援會

龍井市民有志會後援會를지난十一日下午二時에市內第四區宋敏夏氏私第에서百餘名의會合으로組織하엿는데被選任員은會長宋敏夏 副會長黃文七 書記許國氏等이라더라(間島)

牧島陶器會社의 獨逸品驅逐計劃
多量陶器를製造코저活動中

純朝鮮土産陶器를海外에輸出시키는釜山府牧島硬質陶器會社에서는南洋、印度、南米、上海等地에販路를넓고年輸出額이八十萬圓을超過하야全日本陶磁器界의約七割을占하고잇는中近來獨逸에서工業復興으로低落된單價로多量의陶器를供給하야各地市場을攪亂시킴으로因하야그反面에朝鮮産陶器는大打擊을밧게되울뿐아니라上海方面에도日貨排斥으로販路가杜絶되어大體로日本品輸出이困難에陷하엿다는데其理由는近來獨逸에서는民間工業品을軍艦으로運搬하야各國市場에低廉價格으로多量의陶器를輸出시키는外닭이라는바此에對하야釜山牧島陶器會社에서는對策을考慮하든中今般面目을一新하야各方面으로活動한結果單價를低落시킨後繼續輸出시키어獨逸品을大大的으로驅逐할計劃이라는바日本商工省에서도過般부터此問題를重要視한後一方으로日本工業品을世界各國에宣傳外지하기로되엇는데近近實行키로決定되엇다하며該會社에서는今般世界的競爭市場에輸出시킬多量의陶器製造에着手하기로되엇다더라(牧島)

任實靑年委員會

全北任實靑年會에서는지난달三十日午後九時부터本會館內에서第六回委員會를開하고臨時議長李明薦君의司會下에會錄朗讀과各部經過報告가잇섯스며左와如한五個條의事項을決議한後同十一時에閉會하엿다고(任實)

◇決議事項

一、臨時總會召集에關한件
一、郡靑年同盟組織促成의件
一、會館修理問題에關한件
一、會費濫用者處分에關한件

002736

龍岩驛附近에서 大水晶山을發見
◇石質도자못良好

朝鮮은天惠의寶庫로各處에서金銀銅鐵鑛이發見되는것은世人의周知하는바어니와日前平南大同警察署長古市警部는大同郡釜山面을巡視中朝鮮人이直徑八分假量의水晶石이密生하야잇는一貫匁假量의水晶岩을가진것을보고調査한結果同面龍密里(京元線龍岳驛에서約一丁)에서 無數히密生하는一大水晶山을發見하엿는데石質이良好하야採掘에頗히有望하다더라(平壤)

大邱飮料水檢査
犯則者에게嚴重處罰

지난一日午前七時부터午後二時外지大邱警察署에서는慶北警察部의後援을어더서市內各淸凉飮料水店과行商에게飮料水檢査를行하엿는데檢査에違反者가五、六名이나됨으로一般衛生과此後警戒를爲하야犯則者에게는嚴重히處罰한다더라(大邱)

尙州靑年會 實業講習會
九月中에開學

慶北尙州靑年會에서經營인私立普明學院은距今六年前에尙州有志로名聲이놉흔黃芝善、趙南偉、趙南澗、朴寅陽諸氏가設立하야普通學校에入學치못하고道路에彷徨하게되든學齡兒童救濟策으로敎授하야多年間尙州地方의初等敎育에多大한貢獻이잇든바四氏의私情으로 因하야約四年前에尙州靑年會에 讓渡하게되어該會幹部諸氏는加一層努力하야年度에至하야突然히道當局으로부터思想宣傳云云下에廢校를當하야英才를養成하여오든바再昨四氏의本意를잇지안코引受經營한後該會委員諸氏는其對策을講究中이든바元來當地는農業地이며且農業地로有名한外닭에本來目的이든初等敎育을變更하야中等敎育則實業講習會를開하고서認可願을申請하엿더니去月十四日附로認可되어該會委員諸氏及學院關係諸氏는開校準備에紛忙中에잇다하며開學期는來九月로入學程度는普通學校卒業生程度라는바當地에서는實業學校로는公立農蠶學校가一個所뿐으로해마다入學生이增加되어志願者半數도入學키不能하든차그의救濟策에도補充케되엇슴으로一般郡民의稱頌이藉藉하다더라(尙州)

一、鐵原私刑事件에關한件

現代評論社 地方巡講團
醴泉서도盛況

慶北醴泉靑年會와東亞朝鮮兩支局에서는今般現代評論社主催인巡回講演團一行이安東郡豐山서講演을畢하고去一日午後五時自動車로醴泉을通過함을利用하야本豫定地가아닌것만큼積極的交涉을行한結果多幸히承諾을得하얏슴으로當日午後九時부터當地元能仁學院講堂에서金相起君의司會로左記와如히臨時講演會를開하엿는데當日로말하면猝地의일이오또는雨天임에도不拘하고定刻前부터會集하는觀衆은無慮百數十名에達하야意外의盛況을呈하엿스며밤이夜深토록茶話會外지有하얏는데一行은翌日自動車로尙州에向發하엿다더라(醴泉)

一、現代發展의趨勢 李瀧鎔氏
一、價値와價格 洪起文氏
一、財界恐慌의裡面 李寬求氏

平壤을中心으로 大同江沿岸調査(11)
平壤特派員 金灤植

十三、安岳郡

猪島=黃海道安岳郡大杏面猪島里는 平壤으로부터下流一百十五里地點에在한 大同江中의島嶼인데 周圍가約三十里요 海州猪島間二等道路의終點이며 戶口는十二戶 六十二人이 居住하는漁村인데 平壤과商業去來는無하고 大槪鎭南浦와去來한다 此處에서平壤外지上航을하라면 二日間을要하며 運賃은廿五圓이다 一年間 魚物産高는 約一千五百圓인데 此處住民은거의漁業에從事하는者가多하고 商業은殆無한狀態인데此浦口는水深이十六尋에達하야五六千噸級의巨船도 出入이自由로옴으로 西海岸唯一의良港이될素質이有하나 自然대로放置함으로現在는鎭南浦渡船 漁船以外에寄港하는者無하다한다

北倉=戶數三戶이오 地勢險峻狹小한小浦口이다 平壤과는一百廿里인데 一上航에三日間을要하며 運賃은廿五圓假量이다 漁産物은約八百圓이되는데 鎭南浦와去來하고 平壤과는 去來가업다 極히貧寒한漁村이다

外岩浦=는東北은海岸面하고西南은山岳으로圍繞되어陸上交通은至極히不便하다 戶數는十五戶(內日人二戶)인데人口는六十人이오平壤과商業去來는無하다 平壤과距離는八十里假量인데運賃은廿五圓이오產物은漁產이四百圓인바此로써鎭南浦로부터粟을購入하야生活한다

十四、殷栗郡

今卜=殷栗郡長連面東北部에在하야 鎭南浦와相對하얏는데 黃海道西部交通의關門이오 殷栗郡樞要의浦口다 海岸이底하고 泥土가多하야 海水는濁하며 附近에는數個의島嶼가散在하얏는데 總面積은三十方里 西南으로부터發한小山脈은四方에重疊하야 耕地面積은極少하다 戶數는九十戶 人口는三八九人이요 商業去來는鎭南浦와行하며 此處에서長連市는十五里假量이다

十五、龍岡郡

廣梁灣=은本郡金谷面南部大同江河口에在한데 河를隔하야黃海道殷栗郡과相對하얏다 附近一帶는大槪平坦하나 東部三和郡界에는山岳이起伏하얏스며 鎭南浦로부터巖川에 進하는二等道路는 此地中央을通하얏다 戶口는三〇八戶一三八一人인데 日人이四一戶一五七人 其他外國人이七戶二六人이오 平壤과相距는水路二百里인데 一上航에三日間(洪水時는七日間)을要하며 運賃은十圓假量이다 그러나 大槪鎭南浦와行하며主要貨物은 鹽 五千九百十三萬二千八百斤 米三千七百石 大豆二千九百石 棉七十三萬五千斤 果物(苹果)三萬七千貫 大同江을經由하야 平壤에移出되는貨物은 鹽이四十八萬斤(三萬圓)이요 그外의貨物移出入은 鎭南浦와行한다 此處에는廣梁金融組合이有한데 現在貸付金高는八萬八千圓 預金高는四萬五千圓인바 그內譯은

上地買入資金으로四萬七千圓
土地改良資金으로二萬五千圓
牛買入資金으로六千圓
肥料買入資金으로八百圓
商業資金으로五百圓
漁業資金으로五百圓
其他四千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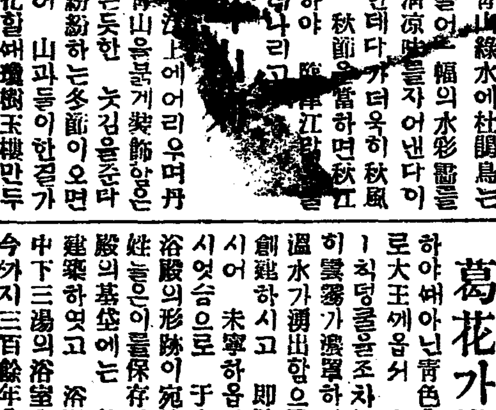
各市場과의距離
齊山場 五里 溫井市二十里
大嶺市場 十里 三和市二十里
德洞市 三里 (續)

地方紹介 (20)

一幅의水彩畫 葛山溫泉
伊川郡 其一

古蹟이散在

江原道伊川郡方丈面에잇는葛山溫泉은 本邑으로부터百廿餘里가되는山谷인바 압흐로는臨津江을가로노코 뒤로는三四十丈의瀑布와 四十餘里를두고하여잇는鳳凰山이라하는名勝이둘러잇다 葛山은비록山谷일망정 春夏秋冬四時를두고 어느때이나 華麗하지안흔때이업서天然的으로된公園이라한다 日暖風和하야 萬和가芳暢하는春節을當하면 山櫻이滿開하고 躑躅의花는爛漫하야 武陵桃源을일우어 遊覽客으로하야금醉케하며 綠陰이茂盛하는夏節을맛게되면 靑山綠水에杜鵑鳥는 雙雙히날아들어 一幅의水彩畫를그려노흔듯淸凉味를자어낸다 이와가티華麗한데다가더욱히秋風이불어오는 秋節을當하면 … 山花滿開하야 … 江上에어리우며丹楓은 … 靑山을붉게裝飾함은 … 한듯한 늣김을준다 白雪이紛紛하는冬節이오면山과들이한결가티흰빗츠로化할때瓊樹玉樓만두렷이서잇슴은 마치어느名畫의



仙景圖인듯도십다 이와가티有名한名勝溫泉을 發見한傳說을듯건대 지금으로부터四百餘年前어느해冬節이다 李朝世宗大王께옵서 玉體未寧하시사 名山藥水를두루 探査하실때偶然히이곳外지이르시게되시엇다 때는마츰白雪이山積하야雪山을일우는山谷에

葛花가滿開

하야뼈아닌靑色을 일우엇슴으로大王께옵서 奇異히너기사그칙덩쿨을조차探査하신바突然히물줄기가濃厚하며岩上으로맑은溫水가湧出함으로 即時浴殿을建築하시고 이어玉殿을創建하시어 未寧하옵신玉體를快治하시엇슴으로 于今外지도玉殿과浴殿의形跡이宛然하다 그後百姓들은이를保存하기爲하야 玉殿의基址에는 甘露寺라는절을建築하엿고 浴殿의基址에는上中下三湯의浴室을建築하야 至今外지三百餘年을두고오며 數十萬의

病者를回生

시키엇다 이ㅣ名勝地이요 自古로이름이놉흔溫泉은 現在도每日三四百名의病者와 遊覽客이來往한다 이ㅣ溫泉은無色透明하고 稍醎味를帶하며 反應은『알카리』性인데 硫化水素내음새가나며 溫度는 攝氏四十七度요 比重一、〇〇一을 示하며一分間의 湧出은約七〇『리돌』이라하며이를分析하면一〇〇〇立方센치미돌』이라한다 이中에

含有한成分

을累擧하면本泉의效用適應症은 慢性皮膚病、慢性淋質斯、痛風、腺病、慢性婦人生殖器病、月經閉止期障害、諸種의麻痺、慢性鼻加答兒、慢性咽喉加答兒、氣管支加答兒(喘息及肺病種斷)經久梅毒、鉛及水銀中毒症等인데 化柳病症은的當한治療를들엇는바 이곳에三百餘年을두고 遺傳하여오는神靈한醫療가잇다

新幹會支會 海州서도設立

新幹會海州支會設立大會는豫定과如히지난一日午後九時부터南本町海州靑年會館에서開催하엿는데定刻이되자會員點名과經過報告가잇슨後臨時執行部를選擧할새議長으로崔明鉉書記로鄭吉欽兩氏가被選되어大會를進行케되엇는바書記로부터會則朗讀과準備會員呂德鉉氏의祝電祝文朗讀이잇슨後新幹會京城本部로부터來參한安在鴻氏의意味深長한祝辭가잇섯고다음으로部門作定과任員選擧等이잇슨後同十一時頃에閉會하엿는데部門別과任員의氏名은如左하다더라(海州)

▲會長黃鶴巢▲庶務部、總務幹事潘吉鉉▲常務幹事孫泰雲、崔相稷▲調査硏究部、總務幹事呂德鉉▲常務幹事黃永熙、崔明哲▲政治文化部總務幹事崔明鉉▲常務幹事李奉植、宋南潑

緣林讓與 高敞郡管內
二次願書受理

全北高敞郡森林組合에서는既報와如히特別緣故林讓與願書受理를去三月一日부터二十三日外지에全部十七面을巡廻하야總六千九百五十二筆中四千餘件을受理하고二百餘筆의未處理分에對하야는第二次로九月上旬頃에各面을短期로巡廻하야全部를受理할터이라더라(高敞)

江西速修農學校
補習農業學校로昇格

江西公立普通學校附設速修農學校는以來二回의卒業生外지내고補習農學校昇格認可願을提出中이든바去月二十八日附로認可되엇는데秋期開學時에는學校內容을一層刷新케한다더라(江西)

醴泉線延長
線路敷地買收

既報와如히多年懸案中에잇든朝鮮鐵道會社慶北線醴泉延長의件은漸次具體化하엿슴으로醴泉鐵道期成會에서는當地에잇는各官公署와一致合力하야去月廿五日부터率先的活動을일으켜該線路敷地及其他買收에着手하야大略의手續을完了하엿슴으로起工은느저도八月下旬이아니면九月初旬에는着手할豫定이라더라(醴泉)

東滿靑總 執行委員會
◇七條項決議

東滿靑總에서는第九回執行委員會를去月廿六日本會館에開하고臨時議長朱梁熙君司會로左記事項을議決하얏더라(間島)

◇決議事項

一、中央協議會出席代表報告의件
朱梁熙君의口頭報告가有하다
一、新幹會龍井支會에關한件
新幹會는全民族的解放을目標로全民族의反抗勢力을總集中시키고저民族單一黨의形成을期함에不拘하고龍井支會는그組織이局部的이며左翼民族主義가아닌灰色分子의派閥支持的陰護下에組織되엇슴으로京城本會에그許可與否와經過一切를書面으로問議하기로하다
一、規約改正의件
從來의聯盟體組織을變更하야單一制로하게하다
一、敎養問題에關한件
가、會報를發行하기로하다
나、新聞講座를開하기로하다
다、少年問題大講演會를開催하기로하고時日其他準備는常務委員會에一任하다
一、少年會指導에關한件
東興學校敎員趙喆鎬氏가組織하는少年軍은從來旣存한少年會에何等의打合이無히組織됨으로反動團體임을認하고少年實任委員으로하여금調査하야事實을聲明하기로하다
一、一般社會問題에關한件
가、中國에서實施하는掩戶食鹽에對하야(中國政府로부터從來每戶大人에게限하야年十七斤式官鹽을配給하엿는데今年부터는大小人을不拘하고全人口數로小兒도一人格으로算하야十七斤式을配給함에)對하야延吉縣과同樣으로他縣에서도反抗運動에努力하게하며地方細胞에通知하야積極的으로後援하게하다
나、孔敎會經營인靈異團을撲滅하기爲하야本聯盟發起로社會團體協議會를開催하기로하다
一、其他當面問題에關한件

論山無靑委員會

忠南論山無產靑年同盟常務執行部에서는지난六月卅日午後九時에本報論山支局內에委員會를召集하고多數委員의參席下에執行部委員長朴璣華氏의司會로執行部書記黃曄氏의經過報告가잇슨後新任委員代表金炯珍氏의初面人事가잇섯고이어서左記事項을圓滿決議한後無事閉會하엿다고(論山)

◇決議事項

一、忠淸運動者懇談會延期에對하야本同盟委員派遣中止에關한件
一、東京協同組合運動社巡講招邀에關한件
一、新入會員受理에關한件
一、在滿同胞義捐金募集에關한件

定州蠶繭共販日割

平北定州郡農會에서豫定發表한定州郡一圓의蠶繭共同販賣日割은如左하다는바一般養蠶家에서는無漏出賣하기를要望한다더라(郭山)

▲玉泉面所七月七日▲定州乾繭場七月九日▲郭山面所七月十日▲馬山面所七月十一日▲高峴面所七月十三日

泰仁郵便所移築

泰仁郵便所는從來當郡廳附屬官舍一隅에在하든바今般當地市場右側에新築中임으로不遠移轉할터이라고(泰仁)

博川牛疫蔓延

平北博川에는近日에畜牛肺疫病이傳染되엇슴을念慮하야當地警察署에서는警員과獸醫는行牛檢査를甚히하는中이라고(博川)

平南地方虫災

平南寧邊德川孟山一帶는今年春旱한卑天으로一般農民들은恐心에가득하여오든바去卅三日의비로겨우勸耕의枯渴은免하게되어一般人心은종용和狀態이든中또다시虫災로一般은역시恐怖中에잇다더라(北倉)

慶源庭球試合

慶源靑年會의主催로去月二十六日午前十一時부터當地庭球運動場에서慶源과琿春軍의大決戰이열리엇는데처음에는琿春軍의優勢가보엿스나山田、金南選手의熱球衝擊으로因하야結局멀리豆滿江을건너서必勝의氣로渡來한琿春軍은不幸하게도敗北하엿다고(慶源)

漆谷地方旱魃

慶北漆谷地方은數個月동안旱災가繼續하야田穀은全部枯死地境이오移種期外지에도旱魃이依然繼續되는바數日內로비가아니오면甲子年과가튼凶年이되겟슴으로一般人心은極度로洶洶하다고(漆谷)

中和納稅表彰式

中和郡中和面에서는去二十七日午前十時에本面內納稅成績優良者에게表彰式을擧行하엿는데表彰者氏名은左와如하다고(中和)

▲樂民里李俊培▲長山里李寬模▲下明月里李澤龍

梅山女靑討論會

全南順天郡梅山女校內의女子靑年會에서는去二十八日午後九時에討論會를開催하엿는데定刻前부터滿員의盛況을일우고丁達英孃의司會로一般演士의熱辯을마치자이어서審論과批評이잇슨後同十一時에閉會하엿다고(順天)

甕津石佛盜難

黃海道甕津郡北面花山里에서는지난六月二十六日夜深中에洞內에잇는佛堂에서唯一의古物로洞民이保管하든八十圓假量되는石佛을엇던者가훔쳐갓다는데洞民은共同保管物임으로크게驚愕하야面民一同과警官들은方今調査中이라는데犯人은迷信者의所爲인듯하다고(甕津)

開城公普落成式

昨年十月八日부터起工한開城第一公立普通學校新築은中이든바去月十日에竣工되엇는바同二十七日午後三時에同校講堂에서官民有志數百名을招請하야落成式을擧行하엿는데山崎郡守의式辭와米田知事代理로出席한高橋學務課長의告辭와來賓祝辭가잇슨後에同校運動場에서盛大한宴會가잇섯다고(開城)

李鳳雨氏의特志

長湖院公立普通學校에서는生徒들의增加함을딸아校舍及運動場이狹少함으로增築코저設計中이나擴張敷地問題로當局者들은크게困難을바더오든바이를본當地李鳳雨氏는學校에隣接된自己所有土地四百八十八坪時價三百三十圓의沓을同校擴築敷地로寄贈하엿슴으로當局者들은勿論一般은稱頌不已한다고(長湖院)

利原咸中老會

咸南利原郡長老敎會堂에서는去十七日부터二十日四日間咸平에잇는長老敎派의例年會로集合하는咸中老會를開催하얏는데會長姜鎬麟牧師의司會下에宣敎師牧師長老三十餘名이會合하야各種決議가잇섯다하며來秋期元山에開催되는總會에出席代表는姜鎬麟諸氏로定하고無事閉會하얏다고(利原)

地方集會

●裡里靑年會講演會=湖南線裡里靑年會에서는來九日에裡里劇場에서通俗大講演會를開催한다고(裡里)

●裡里衛生講演會=湖南線裡里衛生講演會에서는來八日午後부터裡里座에서衛生講演會를開催하고當地方人士의多數來聽하기를바란다고(裡里)

地方人事

▲明以恒秉氏(定州五山學校理事)校務를帶하고來安中(安州)
▲車弘均氏(新山普通學校主)校務를帶하고廿八日出下(安州)
▲嚴昌燮氏(安州郡守)郡內民間人士十八人과共히博川水利組合을觀察하고廿九日歸安(安州)
▲盧東合氏(朝鮮農民社沃溝支部長)支部用務를帶하고去三日沃溝一圓에出張(沃溝)
▲盧民泓氏(瑞興合成學院長)上京中이든바去二十九日歸瑞

社告

本支局에서左와如히局員을任用하얏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소서
記者 金在明
朝鮮日報光州支局白

本支局에서左와如히局員을任用하얏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소서
總務兼記者 安柄璇
記者 鄭武
朝鮮日報金泉支局白

本支局에서左와如히孟山分局員을變更하얏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소서
分局長 金翰容
總務兼記者 朴龍洙
顧問 朴炳鉉
朝鮮日報德川支局白

本支局에서左와如히駐在記者를任用하얏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소서
記者(北倉駐在) 梁禮根
朝鮮日報德川支局白

本支局에서左와如히局員을任用하얏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소서
顧問 姜斗永
顧問 柳冀暎
記者(□□駐在) 申丁均
朝鮮日報牙山支局白

本報華川分局을左와如히支局으로變更하엿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소서
一、支局名稱 華川支局
一、支局位置 華川郡邑內
一、支局員氏名 支局長 咸炳曦
朝鮮日報社白

本支局에서左와如히局員을任用하엿사오니愛讀諸位는照亮하소서
總務 安烋植
朝鮮日報安州支局白

金剛山探勝團募集

◇出發期日 七月二十五日午前六時
◇出發場所 咸興停車場
◇參加金 參十圓
◇申請期日 七月二十三日外지
◇探勝期間 七月二十五日로三十一日外지
◇申請場所 咸興中里一二三朝鮮日報咸興支局 西湖津前李亮燮 五老驛前黃斯顯 定平驛前金俊鎬
◇探勝區域 釋王寺、三防、元山、長箭、內外金剛山全景
◇團員資格 十五歲以上健康男女로함
◇注意 雨天이時는順延함 申請當時에參加金半額(十五圓)을先納할것 名勝地寫眞代及自用金若干圓式携帶할것

主催 朝鮮日報社咸興支局

各地雨量과旱騷

巨濟島의凶兆
九日까지비안오면 소서지내도록가물기는처음
【慶南巨濟島老農經驗談】

경남거제도(慶南巨濟島)에서는 오월일일부터 이개월 동안이나 감으러서 채소는 전멸이되고 고운료수까지부족하야농민들은우려하든중인데 지난달 이십삼일오전에한시부터 하오 륙시까지비가왓섯스나 그것만으로는 아모효과가업스며 이앙은 이할도못하얏는데 년로한농부들의 말을들으면 느저도소서(小暑)인 음륙월십일이내에만비가만이오면 큰흉년은 면할것이나 만일한재가이주일까지계속하면오십이년래처음큰흉년이리라하더라

던바 지난일일에 하로종일안비가 흡족하게와서이축까지는걱정이 업다더라

蔚山
근년희유의감을로 서전조선의농가가 자못 우수중에 잠겨잇는중에도 특히 삼남디방이우심하며 또한 경남울산(慶南蔚山)은더욱심하야 모한포긔내지못하고 시각을 다투어 비를고대하든중 지난달 이십구일 오후여덜시경부터 비가오기시작하야 지금까지계속하는중인데 일반농가에서는 모내기에밧분중이며 깃붐을마지못하야 비를마저가며 이앙하는 노래가한창놉다 고(울산)

長城
전남장성디방(全南長城地方)에는 한재로말미아마 농작물의 피해가적지안코 식수(食水)혹은 채소(小暑)를지나지못하야 일반인심이 매우흉흉하든바 지난삼십일밤부터 나리는비가 하로동안을계속하얏슴으로 다소 해갈은 되엇스나 이앙(移秧)비도 되지못하야 금후가참으로 념려된다는데 이번비는 대개매평 당여덜밀가량밧게오지아햇다고

忠州
지난일일부터충주 목계(忠州牧溪)에는 도 비가나리기시작하야 이틀을 계속하야 나리엇는바 삐만기다리든 리앙(移秧)에 여간분망하지아니한모양이며 도로감을 소동이되든만산은점차완화하여가는경향이라고(목계)

德川地方엔 水災
녕원폭우로

평남덕천군읍(平南德川郡邑)압 대동강(大同江)이지난이십칠일 아참부터 삼회여나 증수되어륙은흔물이나린다함은이미보도한바어니와 대동강의 발원디의일부인녕원군락창(寧遠郡樂倉)부근일대에는폭우(暴雨)가나리어 수재로대소동이잇섯는바이로인하야덕천일대에서 그와가티 뜻밧게홍수를보게된것이라는바인명의사상은아직미명하더라

春川旱騷는 依然히繼續
우량부족으로

춘천(春川)디방은지난일일에약 구미리(九耗)가량의비가나리엇고 최근으로 도합두차례의 비가잇섯스나 모다 흡족치못하야 일반농가에서는 아즉도모를 내이지못하고 잇는터이바 각각으로 느저가는 시긔인만치우려되는바가적지안타더라(춘천)

水利組合怠慢 農作物全廢
일반인심흉흉

평남대동군룡연면(大同郡龍淵面)에잇는 동화수리조합(同和水利組合)의 개축공사(改築工事)가지연되어 전긔수리조합에 소속된 논전부는 아직까지이앙치못하엿슴으로 금년의농작은 전폐되리라하며일반농민들의원성이자못놉다는바전긔조합중역들은지난이십구일에여원회의를개최하고 혹시나 전긔농민들이 맹목덕으로 시위덕행동을 취치나아니할가하며 방금엄중한 경계를하고 잇는중이라는바 일반농민의인심은 심히흉흉 하다더라(평양)

德川에는 又蟲災
한소대신에

평남덕천 개천 맹산 녕원군(平南德川、价川、孟山、寧遠郡)일대에는 지난일일에 또다시비가나리어 지금 가태서는별로한재(旱災)의 우려는 업게되엇섯는데 그대신에 일긔가매양흐림안관계로 밧벼벌레가 성하야충재(虫災)가극히심하다는바그의번식이 매우속함으로 일반은감음으로조리게되엇다가승을 충재로 다시 금조리게되엇다 더라(덕천)

奉天에는 雨量洽足
아즉걱정업다

근일봉천(奉天)부근에도한재로 인하야 일반농민은 적년한재로 폐농을한다 음이라더욱우수중이

지리가는여름과 頻繁한虎疫情報
호렬자의발생디중국서 발서부터오는호역소식
【飮食物의注意가必要】

대련우장성(大連牛莊城)에주재하는 일본경찰관의 보고에의하면우장(牛莊)에는 륙월 이십륙일부터 칠월삼일까지의 사이에 호렬자(虎列剌)비슷한환자(患者)일백여명이 발생하야그중에사망자도 십여명을 내엇는데 그디방의 중국의사는 호렬자로 단정하는바 이소식을들은 일본의관헌은영구(營口)와 해성(海城)에서의사들 파견하야 료사하는중이라더라(대련뎐보)

教員養成所設置
實業補習校爲해 방금규측을초안한다고 不遠間府令으로發布?

총독부학무국(總督府學務局)에서는 실업보습교육시설(實業補習敎育施設)의 충실을도모하기위하야 본년이래오년간을 두고 일군일교(一郡一校)의보습학교(補習學校)를 설치할 방침인바 이와동시에그에관한교원(敎員)양성긔관을 설치할 필요가잇서 륙월이십칠일부의칙령(勅令)에의하야 수원고등농림학교(水原高等農林學校) 규측중의 일부를개정하야동교에농업보습학교원양성소를부설(附設)키로하얏는데그양성소의규측은오일학무국주노부회의(學務局主腦部會議)에서 성안(成案)하야결정한후 심의실(審議室)의 심사를기다려 근일중에 부령(府令)으로써발표할터인데 방금 당해계(當該係)에서립안(立案)중으로그내요는왼쪽과 갓더라

一、名稱 農業補習學校敎員養成所(水原高農內에附設)
二、學科目 農業一般
三、入學資格 (가)農學校卒業生 師範學校練習科의 課程을 終了한者(나)師範學校卒業生으로一年以上農業科를擔任한者(다)五年以上農業學校卒業生으로一年以上敎職에잇든者
四、修業年限 一個年
五、卒業後의服務義務 二個年
六、定員 四十名
七、學資及授業料는徵收치안코 學資는一部補給하는事가有함

尙該養成所의學年은四月一日에始하야三月三十一日로써終了하는것인바本年은時宜의處置로發令한後直時生徒募集에着手하야 夏期休業을廢止하고來年三月末에第一期卒業生을내일豫定으로 七月末이나八月上旬에는開校할意嚮으로學務局에서는準備를進行中

橫濱『호텔』에火災 外人旅客이燒死
횡빈에유명한『호텔』에 화재가일어려객이죽어

사일오전일시이십분경에횡빈시 산하뎡(橫濱市山下町)삼십륙번디의 유명한『텐트호텔』로 부터 불이일어 이웃인 영흥양복상회(永興洋服商會)에 연소가된 것을오후두시반에진화하얏는데그 『호텔』에서류숙하든독일(獨逸)인으로『엥겔스』는상회 지배인(支配人)『에크렙』씨는 타죽엇더라 (횡빈뎐보)

齒科醫師가 浴槽서變死

원적을일본웅본현(熊本縣)에둔 시내황금뎡(黃金町)륙뎡목이십삼번디 치과의(齒科醫) 장미례신(長尾經信)(三五)은지난삼일오후일곱시 삼십분경에 시내광희뎡(光熙町) 일뎡목 일백삼십오번디 광희탕(光熙湯)에 들어가 목욕을하다가 몸던졸도(卒倒)하야 드되어 사망하엿다는바 이급보를접한 소관본뎡서(本町署)에서는 곳게관이 현장에이르러 검시한후사데는 쳐(妻)『긔오』에게로 넘기엇다는바 죽은원인은 각긔(脚氣)로인한듯하다 더라

建築家라氏 離婚을當해

동경(東京)의 데국(帝國)『호텔』을 건축하야 일홈을어든 유명한건축가(建築家)『라이트』씨는 부부간에 다년간정분이조치못하게 지내더니 삼월에이르러 부인이리혼소송을 데긔하얏더라(『심푸란시스코』뎐보)

維鳩小火

지난이일오전십일시경에 충남공주군 신상면유구리(忠南公州郡新上面維鳩里)김병길(金炳吉)의집 부엌에서 점심밥을짓다가 불이나서 한시간가량이나 연소되어 화염이맹렬하엿는데 유구소방조(維鳩消防組)의진력으로 동신이시에진화되엇는바 별로손해는 업다고(유구)

僧侶憑藉코騙財
절짓는다고긔부를강요 피해가수천원이나된다

최근에경성과 개성(開城)을 얼러서 고야산(高野山)의 수계도장(授戒道場)과밋사무소를건축할자금을만칠천원을모집하기위하야 본산(本山)에서 파견하엿노라고 자칭하고 각처일본사람의집을 차저다니며 긔부를강요하는 승려(僧侶)가잇슴으로 도내(道內)각경찰서에수배하고잇는곳을 수사하든중 지난이십륙일에 가사(袈裟)를메이고 개성에 엇던중이들어왓슴으로 소관개성서에서 인치하고 취됴한결과 중이라함은 빨간거짓말이고 이자는 좌하현삼양긔군북부안초자격미(佐賀縣三養基郡北茂安村字赤尾)출생의 궁원웅태랑(宮原熊太郎)이란자로 그와가튼수단으로 어리석은 백성들을속여 수천원을 편취한것이발각되어 개성서에서는 형사가 삼일에 경성에와서 그피해를료사하는중이라더라

父母의强制에 處女總角逃走
두번시집안간다

충북영동군영동면설계리최봉술(忠北永同郡永同面雪溪里崔奉岩)의이녀 금련(今連)(二五)가 명)은올해에이월부터 동리김봉수(金東洙)라는총각과비밀히사랑을주고 바다오든바 월전에전긔금련의부모가 이내딸은밟고 동수를부수히탄라하야 일시동리사람의 주목을밧든바 금련의부모는 하루밧비 다른곳으로결혼을하라고 언론을하며 그딸은위협앏으로 금련은 녀자의정조는 생명보다도중한것이라고다른곳으로는 절대로 시집을가지 안켓다고 굿세게반항하엿스나 그부모역시 동수에게는 절대로보내지안켓다함으로 위규한경우물당한금련은 지난이삼일밤에 부모의 아지못하는틈을타서 집을떠나 종적을감추엇는데 듯는바에의하면 시내엇더한집에 숨어잇는듯하다 더라

風紀紊亂한 尙州農校生
일반비난자자

경북상주군(尙州郡)상주공립농업학교(尙州公立農業學校)학생들은 색주가(色酒家)출입과 기생집 출입이잣게되어 일반시민은 그들의풍긔문란행동을딸아 학교당국자들을 비난도하며 혹은 직접 그학생들을 대하야만흔훈계도 하엿스나 그들은조금도고치지아니하고 요사이와서는일본두루마기에『게다』를신고무란히 타락한 행동을하며 술이취하야 종종 불미한행동을 하는일이만흠으로 일반의 비난이자자하다 더라

시집가기도실코 親庭으로가겟소
협잡군에게유인당한소녀 白晝大路邊에서痛哭

지난이일경북 김천군 읍남산뎡(慶北金泉郡邑南山町) 압흔 길에는나히 이십세가량 되어보이는쉿가튼 젊은녀자가 엇던남자 두사람을 대하야 나는시집도실코아무것도 실흐니어머니 한테다려다 달라고 하며대성통곡을 함으로 오고가는 사람들은십시간에 인해들벌우엇다는바 이제 그자세한 내용을들으면 전긔녀자는 대구부명치뎡이뎡목(大邱府明治町二丁目) 삼십팔번디 배보근(裵寶根)의딸 소향(小香)(三)인데 그곳신뎡(新町)칠십칠번디에 잇는 김상현(金尙鉉)(四)이가 김천 리덕수(李德水)와 공모하고전긔 소향을쇠어내어다가일본사람의집에서심부름 하는사람에게 동을밧고팔아먹으라고하엿스나 소향은 절대로듯지아니하고 그와가티 자긔의집으로다려다달라고하는것이라 하며 소향이가 김천까지온 것은 전긔김상현이가 말하기를 홀로잇스니 심심도할터이매 산보도할겸 놀기도할겸 김천에놀려가자고 함으로어리석은소향은한등의의심이업시딸아갓섯는데 천만뜻밧게 시집을가라고권유도하며 위협도함으로 엇지할줄을모르든중에마츰전긔두사람이밧게나간틈을타서도망하는것을두사람이알고딸아와서가자고그와가티하든것이라더라

少婦逃走
三七前乳兒두고 남의유인바다

호남선리리 마정뎡(湖南線裡里大正町)신현학(申鉉學)과 동뎡 김귀옥(金貴玉)은익산군오산면 목천리(益山郡五山面木川里)서통표(徐龍杓)의처 안이순(安伊順)(三三)을인처유인죄(人妻誘引罪)로지난삼십일에 고소를리리경찰서에 데출하엿다는데 그사실인즉전긔신현학의장자신성일(申成日)(三○)의처 김금주(金錦珠)(一九)와 전긔김귀옥의처안정녀(安姓女)(二○) 두녀자가 지난 이십륙일밤에 행방불명이 되엇는데 금주는저우삼칠일된어린아이가잇슴으로 신씨의 집에서는 어린아이를 다리고 여러사람의 청을어더먹이며 각방면으로 수탐한결과 전긔목천리 안이순이란접문녀자가 두녀자를 유인한 것을알고 고소를데긔한것 이라는데 그두녀자들은 발서정읍(井邑)부안(扶安)방면으로가서 새가뎡을 일우고 잇다더라

裡里靑年 又檢束
사건의의확대

호남선리리(湖南線裡里)에서는 신간회 익산지회(新幹會益山支會)설립에대한선전문 문데로구검자가 생겻스며 그후리리청년회관(靑年會館)동아(東亞)의가택을 수색하엿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지난일일에는빼남순(白南純)김영후(金永厚)양재섭(梁在涉)양판해(梁判海)정한조(鄭翰朝)제씨를동서로소환하야 사법주임정(鄭)경부급가등(加藤)경부에게 취조를 밧기시작하야 그이튼날오후까지에겨우료사를마치엇다는데 동지회설립은아모래도얼마동안 지연될듯 하다더라

富豪『쌀푸』에마저 可憐한少年이失明
『쌀푸』장에서공중는불상한소년이 세차게나르는공에마저병신이되어
【運命의咀呪바든少年哀話】

괴구(崎嶇)한 운명의 심술구즌 커주(咀呪)를바다 어리나 어린 몸이 온갓세간고(世間苦)를 다 맛보고 나종에는 유한계급(有閑階級)의 유희하는데부사용품(副使用物)노릇을 하다가 기름진 팔둑의 힘잇는따림을마자호긔잇고 세차게 날러가는『쌀』에 마저 참혹히도 불구자(不具者)가 된 가련한 소년이잇다 금년에십칠세 가된엄칠성복(嚴七星福)이란 어린아이는엄칠이 되든해에 그부친을일코 홀또된 그어머니가 원산시외송흥리(元山市外松興里)오십삼번디에서 로동업을하는김리손(金利孫)에게사후리를 함으로 어린칠성복도어머니를 딸아가서 오늘날까지 그의붓아범밑에서 길리어 오는터로 지난륙월 오일은송흥리『쌀푸』장에가서 『쌀』한개를 주어오는데십전식을 밧게하고 『쌀』을주으러다니나 가동일오후 비시경에불행히 조거천삼랑(鳥居千三郎)이란사람의쌀에왼편 눈(左眼)을마처서당장에눈깜이 쌔지며호도한것을조거가그의부모도알리지 안코인텀히 부립병원(府立病院)에입원을시키고나서『쌀푸』장의 소사(小使)를칠성복의집에 보내어당신네의 아이가오늘『쌀푸』장에서이마(額)가좀버서저서 피가만히 흐른와닭에의복이 못입게 되엇스니와 의복을달라해서 의복은 가지어 가면서 칠성복이가 치료를맛고 잇는병원은 알리어 주지안엇든바 이삼일이되든후에야 칠성복의 모친은 자긔아들이 눈이 한쪽이 빠지어서병원에입원했다는소리를늣고 곳부립병원으로 달려가보니 과연듯든말과가티 눈한쪽이 빠지엇슴으로 버경실색하야 그모친한씨(韓氏)는 일인조거의 집에가서 자긔자식의 장래를 결하였더니 조거는 현연히당신의아들의치료는 언제가 되든지 완치가되도록 병원에둘것은 물론이고 완치가되어서 나오는날이면 장사를시키던지 또는엇던곳에든지 월급을밧고 잇게하도록 주선을하겟노라고 하든것이 칠성복이가 입원한지 심오일이 되자가눈(假目)만해너코는완치도못된것을병원에서내어보내엇슴으로그모친은다시조거의집에 가서 완치도못된것을 퇴원을시켯느냐고한즉 조거는 돈삼원을 내어주며 달래보내고말엇다는데 그일인 조거천삼랑은 원산에잇는 일인중에도 굴지하는재산가로 겸하야 현재원산부협의원과 원산상업회의소 평의원이란 공직을가지고 잇는터이라더라(원산)

裡里靑年 又檢束
사건의의확대

호남선리리(湖南線裡里)에서는 신간회 익산지회(新幹會益山支會)설립

◇金氏渡米

평양부 신양리(平壤府新陽里)김성락(金聖樂)씨는 평양숭실전문학교(崇實專門學校)를지난일천구백이십사년에 졸업하고즉시평양신학(平壤神學校) 에입학하야 금년봄에우수한성적으로졸업하엿는데 씨는삼년간예정으로신학(神學)을 연구하기위하야 칠월오일에 평양을 출발하야일본횡빈(橫濱)을거처 미주(米洲)로향할터이라는바 씨의 목적한 학교는 『뉴졀지』주『뉴졀지』시 『조니고스돈』신학교이라고(평양)

팔아먹은딸이 情夫와携手逃走
백주큰길에서아비는가자고 딸은죽어도못가겟다고하야 父女活劇을演出

함남삼수군읍 선면수차리(咸南三水郡邑面水車里)에보좌를 돈 엄인섭(嚴仁燮)(四○)은 당년 열아홉살되는 딸금주(金珠)를 당디천석교(金石橋)에게몃달전에 돈일백원을밧고약혼(約婚)한 뒤결혼(結婚)일자는 지난오월이십륙일로 정하엿든바 전긔딸 금주는 동내(洞內)최영일(崔永日)(二二)과 벌서부터 정을 통하야오든바 전긔불구자(不具者)인 김석교(金石橋)에게약혼(約婚)을 하매속마음으로죽어도 안가겟다고 결심하고지난 음력사월이십팔일 밤에 전긔최영일(崔永日)과가티도망하야 함북경성군 주을온면집삼진(咸北鏡城郡朱乙溫面集三津)에서두남녀는 어상(魚商)을하야 그날그날을지내다가 우연이 두남녀는 라남(羅南)에 갓다가오는길에 금주(金珠)의 아버지엄인섭(嚴仁燮)을맛나게 되매 엄인섭은 [illegible]와딸을내라고하며 딸의치마를 잡고전석긔와가서살라고 하며딸은 안살겟다고하야백주에 큰길에서 일대활극을연출하얏는데결국그딸은또다라나고 엄인섭은 대성통곡을하며 그부근을 몰아다니어 한동안애소동이일어낫섯다더라

自働車衝突
月尾突堤에 승객은다행히무사

인천자동차상회(仁川自働車商會)소유인 삼백오십구호자동차는박건성(朴建成)(三六)의운뎐으로 지난이일오후열한시반경에 인천월미도로부터 승객 일곱명을태우가지고인천시내로향하여오자 전긔동상회의소유로 김윤환(金潤煥)(二五)의운뎐인 삼백오십팔호의 빈자동차가 시내로부터월미도로 가다가 월미도 돌케(突堤)에서충돌이되어 박건성의운뎐하든 자동차가바다로 떨어저 사백사십원의 손해를 내고승객 일곱사람은 다행히 무사하엿다더라(인천)

釜山牧島에 癩病患者流入
온화관계로

부산부목도(釜山府牧島)에는요사히 문둥병자가 수십명이들어와 사오명식작대를하야 가지고 시내로 방황한다는데 보는사람마다 불유쾌와 불공한마음으로 비난이만타는바 아마 근래서북선(西北鮮)디방에서긔후의온화한곳을 차자온듯하며 부산시내에도 삼백명가량이 시가에허터저잇다하며 아죽도 도당국에서는 무관시하는 모양이라는데충독부경영인전남록도(全南鹿島)라병원에 수용하게될는지도 모르겟다 더라(목도)

漢江서또溺死
원수의일요일

지난삼일은 마츰일요일이요 일긔가 매우더워서 한강텰교서는 한바람에 맑고맑게흐르는 물결은산보하는 여러손님을 꾀할난하게되엇든바한강통(漢江通)십삼번디 석긔재목뎜에서 고용으로잇는 포무웅(石崎材木店雇傭人蒲武雄)(二七)은 일요일을긔회로삼어 한강텰교에 산보를왓다가 오후세시경에 한강깁흔물에서헤엄을치든중그만수중고혼이되엇다는데그시톄는아즉발견치못하엿다 더라(시흥)

主嶺넘는다고 洞民과會葬人衝突
쌍방의부상자세지내어 咄咄!!迷信의因襲

지난일일 오전열한시에 상여한채가호긔잇게무극리(無極里)를 지나다가 녯날부터 주령(主嶺)이라하야상여등속은통행치못하게하던곳을위력으로통행하라다가무극 시민과서로 말성이되어 가느니 못가느니 서로닷다툼이 시작되어 승강이가되다가 필경에는서로격투가 시작되어 싸홈이 일어나서량방에 부상자를 내인모양인데 그중에무극리안시근(安始根)(二三)최창근(崔昌根)(三三)외수인은 뭇사람에게 만히마자서 굴신치못한다는데 그자세한사실을 들은바에 의하면음성군읍내(陰城郡邑內)정한용(鄭漢容)이란사람의모친이죽어서자긔고향인삼성면(三成面)새미실로장사를 지내려고 가든중 무극리를지내다가우시장(牛市場)근처는 넷날부터 상여가지나가면동중이 큰화를당한일이 잇다하야아모라도그길로상여가 지내지은업섯는데 전긔정한용의상여가지내려니까동리사람인 전긔안모(安某)외수인이나가서 이곳은 녯날부터 상여가지나감을꺼리어서 도모지 그리로지난일이업섯스니 불길상관이녹 한사십간만돌아가라고 조흔말로 만류하엿스나그들은신작로에그가튼법이무슨소용잇느냐고회장군규상여군까지 백여명이 강제로지나가노라고 그리하얏다 하며구타를당한안모외수인은매우 격분하야 소송이라도 케긔하겟다고하며 그배마참경관이 잇서 극력제지하얏슴으로다행이큰일은업섯다더라(무극)

◇旅客逢賊

충북음성군무극리(忠北陰城郡無極里)에서려인숙하는 박간란(朴干蘭)의 집에서는지난 이십팔일 오후십일시경에청주본정(淸州本町) 목목긔오복점원신창래(木崎吳服店員申庄來)(三○)가 숙박(宿泊)하든중피곤하여일백오십이원칠십전을너흔수체가방을머리마테노코곤히잠을 잣섯는데 이튼날아츰에 본즉가방이 업서젓슴으로어이가업서당디경찰서에 계출한바 동서에서는 궁본형사와박형사가출장하야범인의자수인을인치취조하얏스나범인데포할단서를아직엇지못하얏다고

◇新浦에赤痢

지난이십팔일에 함남북청군 신포면중보주리사십팔번디리진해(咸南北靑郡新浦面中寶珠里李鎭海)(二)와 그동리삼백신칠번디 김재학(金在學)(二六)의두아이가『아미바』적리에 걸려사망하엿다는데 이소식을접한 신포경찰당국에서는 만일을 념려하야예방에 대활동중이라고(신포)

運動競技

甲子園에갈 中等野球豫選
七月廿九日부터

大阪朝日主催第十三回全日本中等學校野球大會는八月十三日부터大阪甲子園에서擧行할터인바同朝鮮豫選은來廿九日부터四日間京城運動場에서開催할터

沿江蹴球大會
去三日부터開戰

第二回沿江蹴球大會는去三日午前十時부터龍山工友會運動場에서開催한바參加七팀의抽籤을行하야金永熙氏레퍼리로龍山靑年會對京工職이비긋되야二對二으로우선龍山靑年軍이一勝한바同軍은昨年優勝者임으로今年에도優勝하면永히旗를누릴터이더라

『有子二人莫慰母心』 淫逸의女、放縱의母
자식을남매두고도본부업는사이가통타발각돼

경긔도진위군병남면신대리(振威郡丙南面新垈里)사는 황봉수(黃鳳秀)(五四)는 몃해전에 동리사는 리선봉(李仙鳳)이란 계집에게장가들어 구루마를 끌어서 버는돈으로 가난한 살림을해오든중전긔황봉수는 버리차로 나가면 이삼일식집에 업슴을긔회로 그의처는 동리사는 림준상(林俊相)(三一)이란자와약일년전부터추한관계를매저오든중지난달이십일경에는역시주인이집에 업는틈을타서 간부림가와 가티자다가 본부에게 들키어본부는 분함을참지못하야가위로계집의 머리채를잘러다음은다시그런 짓을못하게하엿든바그날부터계집되는 리선봉은 전긔림준상의 집에가서 들어업되어잇슴을 알고 집으로돌아와서 여러가지로타일럿도 종시듯지안코 그대와는살수업스니호적을갈러달라고 을해달라고고지난달이십이일에평택경찰서(平澤警察署)에들어가고소를데긔하엿다는데게집은 본부의몸에 두남매의자식이 잇슴도 불구하고그가티한다하야동리에 비난이자자하다더라(평택)

ᄯ氏未亡人 아氏와約婚

세계뎍『테노-르』의가수(歌手)인『칼소』씨의 미망인(未亡人)『쓰러시』는『벤챠민』는『칼소』부인은『아메리카』의『핏파-쓰』의부호로 원래서반아주차(西班牙駐箚)미국대사이든『알렉산덕、아아』씨와 혼약이성립하얏다더라(파리뎐보)

鄭富豪詐欺犯 三年求刑

대구에서 일류부호인정재학(一流富豪鄭在學)을속이고 현금이 만삼천원을 사긔(詐欺)한 범인의공판은 지난이일오전 대구디방법원에서 금천재판장(金川裁判長)곡뎐검사(谷田檢事)립회하에 개뎡되엇는바 범인은시내원뎡이뎡목(市內元町二丁目)에서 곡물상(穀物商)하든 한긔동(韓基東)(三六)인바 그는대정십이년봄부터 정(鄭)에게 신용(信用)어든것을 긔화로 생각하고 교묘하게도 당시청도등긔출장소원(淸道登記出張所員)과공모한후에 등긔를위조하야 가지고 전후두번에 일만이천원을편취하얏스며 또한정(鄭)의 위탁보관중(委托保管中)이든 벼를 아모승락업시 일만일천원에 팔아가지고 멀리상해(上海)로 다라낫다가 작년에청도(淸道)본고향으로 잠시다니려왓다가 그와가터데포되엇다는바 곡뎐검사(谷田檢事)로부터 징역삼년을 구형하엿는데 판결언도는오는구일이라더라(대구)

怨聲놉흔 牛頭水組
땅갑과곡식갑을도모지안줘

문데가빈출하는 춘천 우두수리조합(春川牛頭水利組合)에서는금춘이후 그수리조합 수로용디(水路用地)를 미처 디주들에게 승락도밧지아니하고 임의대로 사용한까닭에 당시 여러디주들의반감을산일까지잇섯는데 그후오날에 일으기까지 토디대금과 밋수확불배상등을 지불치안는다하야 다시금 원성이놉흔모양인바그중에서나타난가장가련한희생자(犧牲者)의한실례를들어보면 동군신북면마산리(同郡新北面馬山里)이백칠십일번디 박정오(朴正五)(四○)라는사람의 보리밧 백여평이전부동수조의용디속에편입되엇는데그는극빈한 궁농계급으로서로래에여섯식구를 다리고 건긔박헤다가 생맥을걸다십히 하고춘궁을 근근히사라오며 보리나익으면 서너섬먹을 줄발고그것을유일한 식량으로 미더오든것이마츰내 그모양이되매 그당시도보리갑을물어주겟느냐는다집까지 두고 기다려오든터인데지금에대금과 배상을물어주지 아니함으로 니항으로 목하여섯식구의 가족들이 아사디경에 일으럿스면서 조합당국을 원망하고 잇다는데 이가튼실례가실로불소하리라더라(춘천)

◇學生執拗盜

전북고창고등보통학교(高敞高等普通學校)에서는 학생구두 도난이빈빈하든중 지난일일오전에 동군고창면교촌리(高敞面校村里)김판순(金判順)(一七)이가 학생의 구두한커리를훔처가다가 동교소사에게발각되어즉시경찰서로넘겻는데 동교에서만 구두일곱커레를갓다팔아먹은것을자백하엿다고(고창)

蕩子로刺身鬼로
필경은경찰서구경

조선의 소위량반(兩班)이라는 특권계급(特權階級)으로한참당년에는나는새도떨어트릴듯하든 명문거족(名門巨族)의 자질(子姪)들이조상이남겨준 종토(宗土)와 유산이 만흠으로인하야혹은 주색(酒色)에 싸저서세상을모르며 혹은『아편』『모루히네』가튼마취약(痲醉藥)에도취되어 부모형데는 커녕놋갓내는 자긔자신 싸지도 망각케되는비참한말로를짓고마는것은우리가나날이 목도하는 터이나시내계동(桂洞)오십번디박유석(朴有錫)(三○)과시내재동오번디(齋洞)리훈종(李薰鍾)(二八)의두명은 다가티명문거족의 자질로써그의부친은 지나간날에 대신(大臣)까지 지내인 사람이라는데전긔두명은거대(巨大)한재산을전부주색(酒色)에탕진해버리고 끗끗내는『모히』독자가 되어자신귀(刺身鬼)로써유명하든 중죄근에 이르러서는『모히』밀매까지한사실이발각되어삼일종로서에데포되어목하엄중한취조를밧는중이라더라

短刀自殺
아들은강도범 身病으로

전북익산군오산면 목천리(全北益山郡五山面木川里)조은경(趙銀京)(五三)은지난이일 오후네시 쯤에 단도로목을찔러 자사 되엇다는데 원인은아즉 자세치 못하나 조은경은 위장병으로다년간 신고를하든중 월전에는더욱이 자긔아들 백만(白萬)이란자가 강도혐의로 데포되엇다는 것을듯고 정신에이상이 생긴것 갓다더라

僧房悲曲
(無斷轉載禁)

獨鵑 作
羅雲奎撮影監督
〔47〕

지나간날 (二)

베의 향긔(新香)가 바야흐로 놈하가는 엇던초가을이엇다 명진의동리에 종쇄로와본적이업는귀빈이왓다 이귀빈는그 부락일대가총출하야 환영하지 아니하면아니될그들이소작하는토디의 디주리준식(李俊植)의아버지)이엇다 대자연의 한구룸인 이농촌일대의 더당이 거의리준식의소유이엇다

대자연의한 구룸이는 완전히돈에정복되엇다

쌀아서그농촌일대의소작인들은 자연의혜택보다도 리준식에게 감사를들엿다 흉년을떠나서 살수업는그만큼그들은 이윤의주인을무이고 살수는 업는것이엇다 윤권이의 집에서는 이귀한손님을 치두기에 분주하엿다

저녁을먹고난 리준식은 밧그로나갓다

물에는 첫빗가튼 달이고요히 녹아나리고 잇섯다

『아ー 달도밝기도하다』

누가보든지 아름다운 달밤은디주리준식에게도 아름다웟다 저녁바람에 물결치는 황금의들우에 안진업시 녹아나리는은색의 달빗ー이것보다도 아름다운 것을 준식은보앗다

그것은 자긔집대문을 나서서이웃집으로 팔을가는 윤권이의뒷모양이엇다

잠간보혓다 가순간에사라지는처녀의뒷모양은 한삼이 갓가운리준식의 피를접게 하엿다

그는 삐안인 젊음에떨리 어언케까지나 자긔의침실로 들어갈줄을몰랏다

깁허 가는밤을딸아 달은점점밝아젓다

뒷모양으로사라젓든아름다운대상은다시정면으로준식의눈압헤나타날때가왓다

그는이웃집에서 자긔집으로 돌아오는 윤권이를 똑바루보고방으로돌어왓다

그이튼날그것이 그집의 열여덜살되는외딸인줄을 안 리준식은 애욕(愛慾)이라기 보다 소유욕(所有慾)이끌어올랏다

달밤에보는처녀의미모에도소유욕을늣기는것이디주리준식의인생관이엇다

소곰석듯 불로물래도 밥벗고들어술 소작인의딸을 내것을만들기에 그는조금도 주저치안엇다 읍내자긔집으로 돌아온 리준식은 지체치안코 자긔의심복을내어보내어 윤권이를 겁으로달래는교섭을시작하엿다 교섭의내용은간단하엿다 ー 딸을디주에게로 보내면일년도 부자의마마님으로 호강을 마음대로할것이요 윤권이의부모는 농사짓노라고피연안흘리고라도 만년에 평안이 지낼만치 생활보장을해준것이라는것이 윤권이를 리준식의 첩으로 보내라는권유(勸誘)조건이요 또한편으로는 ー 만일디주의 이청을 물리친다면이짱을 부처먹고 이곳에서살수는업슬터이니 생각해서 하라는은근한위협도숨어잇섯다

디주의 차인이 다녀돌어간뒤에 윤권이의 부모는 머리를모으고 의론하엿다

『그러니여보 귀ー엿딸하나잇섯다가 엇데케 좀은이의첩으로 보내겟소』

마누라가 얼생생이 반대를하엿다

『아따 별소리를다 하는구려아무데두나 가서잘살앗스면 쓰지 웨그러우……가난한놈맛겨서고생하는것보다 낫지안으리 그리구우리내외두 딸년덕에 의식걱정은업게될란이구……』

마누라도 에썻반대하려 하지안엇다 귀여운딸을 늙은이의첩으로보내는희생이 나을 퓸질의리익이 그들의 량심의눈을 감겨버렷다

다음날 디주에게불려들어간 윤권의아버지는 쾌히 승락하고돌아왓다 그대상(代償)으로는 금년부터는 도지를바치지않것 근방의녕은 어느것이나 마음대로 골라부칠것 위선소나한바리 사매라고 수백원집어준것 이엇다

윤권의부모는 모든것을 아저버리고 깃버하엿다 두버의는이깃붐을 딸과가티논흐기위하야 윤권이를불러듸다 술이얼근히 취한 윤권의아버지는딸의손을잡으며

『우리윤권이는 귀가이러케소담해서 복이잇는게야……윤권아 이제너 부자시집으로 시집보낼레니……』하고 우섯다

『부이그엿감도 어린걸다리구별『리를다하는구려』

아니야 아니야 커두먼것은 벌구엇서야지 아가윤권아 커음에잇는 우리부처는영입자 리참사(준식을 이러케불은다)어른이 너를다려간단다 로레에 호강하실양으로 그러면너도 잘먹구잘입구 호강할레구 늙은아비에미도 만년에편안이살것구……모두베가티구난 복이란말이다 허허……』